

중소기업, 원자재 가격부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52.6%가 경영부담 느껴 ... 기술개발 전략 부진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과 애로점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7.8%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곳이 36.8%였던 반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25.3%에 그쳤다.

내수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전체의 43.3%, 47.8%를 차지하며 우세했지만 자금 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28.3%)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22.7%)보다 많았다. 하반기 들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반기 경영에 부담이 되는 외부환경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5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럽국가들의 재정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18.1%)와 환율불안(12.8%)을 우려했다.

중소기업들이 전망하는 2010년 경제성장률은 4.4%로 정부와 국내외 기관이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원가절감(31.3%)과 신홍시장 확보(29.3%)를 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전략을 세운 곳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1%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투자규모는 상반기(8억3000만원)보다 확대된 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전체의 63.2%를 차지해 중소기업 채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47.7%)라고 답한 곳이 많았다. 이어 투자 세액공제 확대(24.0%), 대기업 및 공기업의 투자확대 유도(10.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의 70.4%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4>